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33

미가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미 가 Micah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6:8)

הגיד לך אדם מה טוב ומה יְהוָה דֹרֵשׁ מִמֶּךָ כִּי אִם-עֲשׂוֹת  
מִשְׁפָּט וְאַהֲבַת חֶסֶד וְהִצָּנֵעַ לְכַת עִם-אֱלֹהֶיךָ:

## 미가 차례

---

|                                   |       |     |
|-----------------------------------|-------|-----|
| 미가 서론 .....                       | 〈12제〉 | 329 |
| 제 1 장 심판자의 위엄 .....               | 〈16제〉 | 333 |
| 제 2 장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형벌 .....       | 〈14제〉 | 338 |
| 제 3 장 지도자들의 범죄로 인한 예루살렘의 파멸 ..... | 〈14제〉 | 343 |
| 제 4 장 그리스도의 왕국 .....              | 〈14제〉 | 348 |
| 제 5 장 영원한 평화의 왕 그리스도 .....        | 〈16제〉 | 353 |
| 제 6 장 회개의 권고와 심판의 위협 .....        | 〈16제〉 | 359 |
| 제 7 장 흑암 중에 하나님의 영광 .....         | 〈17제〉 | 365 |

## 미가 특별 자료 차례

---

|   |     |
|---|-----|
| 미가 서론 〈지도 자료〉 선지자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 (Moresheth) ..... | 332 |
| 제 2 장 〈본장의 요절〉 .....                            | 342 |
| 제 3 장 〈화보 자료〉 들무더기 .....                        | 347 |
| 제 4 장 〈화보 자료〉 낮을 든 촌로 (村老) .....                | 352 |
| 제 5 장 〈본장의 요절〉 .....                            | 358 |
| 제 6 장 〈연구 자료〉 공의 (公義) 를 부르짖은 선지자 미가 .....       | 364 |
| 제 7 장 〈본장의 요절〉 .....                            | 371 |
| 제 7 장 〈화보 자료〉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           | 372 |

# 미가 서론

## 1. ㉠ 본서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 ㉠ (1) 본서의 명칭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 ‘미가’ 서(書)로 불리어진다.  
 (2) 히브리어로 ‘미가’라는 말은 <미가야>인데 (렘 26:18) 그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이냐?’ (7:18)이다.  
 (3) 그 후 70인역(LXX)에서는 <미가야>를 헬라어로 음역한 <미카이에스>를 본서의 명칭으로 칭하였으며 벌게이트(Vulgate) 역도 <미케우스>로 음역하였다.  
 (4) 한편 개역 성경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 본서를 ‘미가’ 서(書)로 칭하였다.

## 2.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의 저자는 이사야(B.C. 758-698)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미가이다.  
 (2) 이는 본서 1:1에 미가가 요담(B.C. 739-735)과 아하스(B.C. 735-725) 그리고 히스기야(B.C. 725-697)의 통치 시대에 여호와와 말씀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3) 그런데 일부 성경 비평 학자들은 본서의 1-3장과 4-7장은 논리가 정연하지 않다고 하면서 4장 이후는 미가의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4) 그러나 본서의 내적 통일성은 본서가 한 저자의 글임을 강력히 입증하고 있다. 즉 각 설교의 서두마다 ‘들을지어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1:2;3:1;6:1) 본서 전체에 목자의 이미지가 흐르고 있다(2:12;3:2이하;4:6;5:3이하;7:14).  
 (5) 게다가 각 설교마다 저자 스스로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의문법이 사용되어 있다는 점도 본서가 한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2:5, 12;3:1;6:6-8;7:14이하).

## 3. ㉢ 미가는 어떤 인물인가?

- ㉠ (1) 미가는 요담(B.C. 739-735)과 아하스(B.C. 735-725)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B.C. 725-697) 시대에도 활동을 한 선지자이다(1:1;렘26:18).  
 (2) 그는 모레셋(Moresheth) 또는 가드모레셋(Gath-Moresheth)이라고도 하는 작은 마을의 출신인데(참조, 1:1, 14;렘 26:18) 그곳은 블레셋 성읍 가드(Gath) 근처에 있었다.  
 (3) 한편 이러한 환경은 그의 메시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그는 가난한 농부와 목자들을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라의 중추(中樞)임을 깊이 인식하였으며(3:2-4) 또한 국경선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자연히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4) 또한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성행하였던 이교적(異教的) 제사 의식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관리들의 부정(2:1;3:2, 10)과 그릇된 상거래(6:10;7:2) 및 거짓 예언자들을 통렬히 비난했다(2:11;3:5).  
 (5) 결국 이와 같은 미가의 활동은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계기가 되었으며 스스로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2:5, 11).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좌절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고, 소망의 찬가를 부르면서(7장) 메시야가 다스릴 미래 왕국의 도래를(4, 5장) 바라보았다.

## 4.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에는 미가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1:1).
- (2) 또한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멸망한 사건(1:6, 7)과 앗수르 왕 사르곤 2세(Sargon II, B.C. 722-705)가 B.C. 715-711년에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을 침략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다(1:10-16).
- (3) 또한 렘 26:18, 19에서는 선지자 미가가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4) 이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에 미가의 활동은 히스기야 왕 14년, 즉 B.C. 701년 앗수르 왕 산헤립(Sennacherib, B.C. 705-681)이 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전에 끝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1:9; 왕하18:13).
- (5) 그러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는 미가가 예언 활동을 마무리한 시점인 B.C. 700년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5. ㉠ 본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 앗시리아는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하려는 야망에 불타 있었다.
- (2) 이 같은 야망을 품고서 빌레셋 3세(Tiglath-Pileser III, B.C. 744-727), 살만에셀 3세(Shalmaneser III, B.C. 727-722), 사르곤 2세, 산헤립 등으로 이어지는 앗시리아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앗시리아의 침략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도덕적 타락 및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
- (4) 이처럼 미가는 조국이 외적으로는 앗시리아의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백성들의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본서에 기록된 예언을 하였다.

6. ㉠ 본서의 시대적 배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서에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과 부패를 행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앗시리아 제국이 살만에셀(Shalmaneser)의 통치하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1:9).
- (2) 이 같은 상황은 곧 하나님께서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앗시리아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연의 힘이나 역사의 위기를 통하여서도 사악한 인간을 심판하신다.
- (4)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스스로 그 뜻을 거스려 앗수르의 침략을 초래하게 된 사실에서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고 하시던 그리스도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다(참조, 눅12:47, 48).

7. ㉠ 미가와 이사야의 관계를 설명하라.

- ㉠ (1) 미가와 이사야는 B.C. 8세기 후반의 같은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하였다.
- (2)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와 이사야서에서는 유사한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참조, 2:11과 사 28:7; 3:5-7과 사 29:9-12; 3:12과 사 32:13, 14; 4:1-5과 사 2:2-5; 5:2-4과 사 7:14; 9:6).
- (3) 그리고 미가는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그곳에 종종 체류했었다. 뿐만 아니라 렘 26:16-19에 따르면 미가는 이사야처럼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여 히스기야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단행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 (4) 또한 미가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성행했던 이교적 제사 의식과 사회의 부정을 책망한 동시에(1:5, 7; 2:1, 2, 8, 9; 3:11)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

으며(1:6;3:12)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과 축복을 예언하였다(5:2-15).

(5) 그러나 미가의 예언이 이스라엘(사마리아)과 유다(예루살렘)에 한정되었던 반면,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점이 구별된다.

8. ㉠ 본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 (1) 미가는 B.C. 700년경에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명확히 예언했다(5:2).
- (2) 여기서 미가는 베들레헴의 고대 이름인 에브라다(창35:16, 19; 룻4:11)를 덧붙임으로 더욱 메시아의 사역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 (3) 즉 ‘떡집’ (the house of bread)이라는 뜻을 지닌 베들레헴을 통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요6:35)을 시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다’ (fruitfulness)는 뜻을 지닌 에브라다를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마음 받을 살찌우실 것(엡3:17)을 예언하였다.
- (4) 또한 미가는 메시아의 기원을 창조 이전, 즉 태초에 두고 있으며(5:2) 이 메시아가 여인에게서 탄생할 것을 예언함으로써(5:3) 이사야의 예언과(사8:14)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 (5) 결론적으로 장차 오실 이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5:5; 사9:6) 앗수르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5:7-15).

9. ㉠ 본서의 문체와 형식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문체는 사실적이고 활기에 넘치며 변화가 많다. 특히 미가는 대조법(對照法)을 많이 사용했으며 극적으로 문장을 끊고 답을 제시했다(2:5, 12; 3:1; 6:6-8; 7:14이하).
- (2)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을 즐겨 인용하였으며(1:13, 15; 5:5; 6:4-6, 16; 7:20)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명칭을 언급하였다.
- (3) 때때로 미가는 목자(牧者)의 이미지가 들어 있는 시적 표현을 사용해(2:12; 3:2이하; 4:6; 5:3이하; 7:14) 서정적인 어감(語感)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서정적 문체는 주로 기도문과 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

10. ㉠ 본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내용은 3편의 예언적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 (2) 첫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사마리아의 멸망, 유다의 황폐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은총을 회복받는다라는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다(1:2-2:13).
- (3) 두번째 설교는 전반부에서 방백, 거짓 선지자, 불의한 재판관과 제사장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선 마지막 때에 회복될 시온과 이스라엘의 영광, 바벨론에서의 귀국, 세상 나라들과 싸움에서의 승리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여 남은 자를 보호하시며 평강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다(4,5장).
- (4) 세번째 설교는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와 의 책망과 회개 및 주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의 촉구가 언급된 후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다(7:1-20).
- (5) 여기서 우리는 세 설교의 내용이 내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첫번째 설교에서는 심판의 위협이, 두번째 설교에서는 메시아적 선언이, 세번째 설교에서는 회개와 겸손에 이르게 하는 충고와 권고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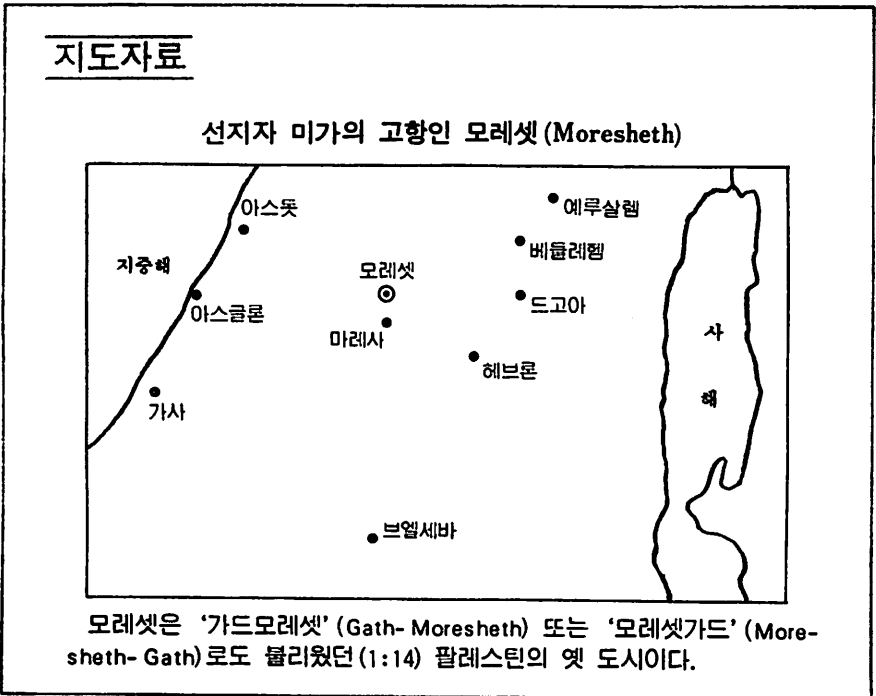
11.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1:1-2:13

- ① 압박한 심판의 제시/1:1-16
- ② 압박한 심판의 이유/2:1-13
- (2)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3:1-5:15
  - ① 멸망 - 압박한 심판/3:1-12
    - ㄱ. 지배자에 대한 심판/3:1-4
    - 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3:5-8
    - ㄷ.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3:9-12
  - ② 구원 - 미래의 왕국/4:1-5:1
    - ㄱ. 왕국의 영광/4:1-8
    - ㄴ. 왕국에 앞서는 고난/4:9-5:1
  - ③ 구원 - 미래의 왕/5:2-15
    - ㄱ. 그의 초림/5:2, 3
    - ㄴ. 그의 재림/5:4-15
- (3) 경고의 메시지/6:1-7:10
  - ① 하나님의 첫번째 경고/6:1-5
  - ② 이스라엘의 첫번째 대답/6:6-8
  - ③ 하나님의 두번째 경고/6:9-16
  - ④ 이스라엘의 두번째 대답/7:1-10
- (4) 이스라엘의 축복/7:11-20

12. ㉔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6:8).



# 제 1 장 심판자의 위엄

단락구분 1 여호와와 말씀이 미가에게 임하다 / 2-5 여호와와 심판과 그 이유 / 6-7 사마리아 멸망의 예언 / 8-9 예루살렘까지 미친 상처 / 10-16 성읍들의 파멸에 대한 예언

1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2 백성들이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3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시라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4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라

5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6 이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7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훼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8 이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9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 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도 미쳤음이니라

10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11 사빌 거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야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벤에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12 마룻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13 라기스 거민아 너는 준마에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14 이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심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15 마레사 거민아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답까지 이를 것이라

16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및 그로 인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2)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극도로 부패하여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출20:3,4)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3)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에서까지 행하여졌으니(1:5) 그 백성들의 부패한 정도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  
 (4)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부패한 백성들의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셨다.

## 2. ㉠ 여호와와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1절)

- ㉠ (1) 여호와와 말씀이 요담(B.C. 739-735) 과아하스(B.C. 735-725), 히스기야(B.C. 705-697) 전시대(全時代)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하였다.



- (2) 이 같은 사실은 미가의 가르침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곧 하나님 자신의 뜻이 담긴 말씀임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가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여 그들의 당시 행동, 즉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던 행위를 증지하고 회개하였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참조, 왕하15:35; 16:4; 대하27:2; 28:1-4; 29:5-7).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 (5) 한편 우리는 오늘날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참조, 눅11:28; 요8:47).

3. **㉠**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1절)

- ㉠** (1)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2)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서(왕상16:24-29) 그곳의 선지자들은 가나안인의 우상인 바알을 섬기며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렘23:13).
  - (3)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로서(대하 25:20) 그곳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었고 우상 숭배와 악행이 만연하고 있었다.
  - (4)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오히려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의 본거지가 된 것이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곳의 성읍에 대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3-7절).

4.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3절)

- ㉠** (1) 처소(處所)에서 나와 강림(降臨)하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높은 곳이나 망대 또는 견고한 성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며 하나님을 능욕하였다(참조, 왕상14:23; 절 6:1-6).
  - (3)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같은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명하시며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이 같은 죄악에서 돌이킬 줄을 몰랐었다(왕하17:13).
  - (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푸셨던 자비를 거두시고 높은 곳에 세워진 산당을 부수시며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5. **㉠** 하나님께서 밟으신 산과 골짜기는 어떻게 되는가? (4절)

- ㉠** (1) 불 앞에 녹아 내리는 초나 벼랑에 쏟아져 내리는 물처럼 하나님의 발 밑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질 것이다.
- (2)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嚴重性)을 표현한 말이다.
  - (3) 즉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스라엘은 마치 녹아 떨어진 산들과 갈라진 골짜기와 같이 비참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 (4)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앗수르의 침략으로 모든 성읍이 약탈당하였고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다(왕상17:1-23).
  - (5)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죄를 짓고선 돌이키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들이 의지했던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시49:6-12).

6. **㉠**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야곱의 허물 곧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었다.
- (2) 여기서 죄란 다름아닌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의 상(像)을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를 힌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의 제

물로 불살랐다(렘7:29-34; 19:2-6).

- (3) 또한 그들은 사술(邪術)과 요술(妖術)을 행하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으며 산당을 세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대하28:2, 3; 33:6; 렘7:31).
- (4) 그리고 이러한 불의한 행위를 지적하고 백성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악을 행하며 백성들에게 헛된 것을 가르쳤다(참조, 렘23:15-17).
- (5)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 이는 곧 '사람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예레미야의 사상과도 일치한다(렘31:30).

7. **㉠**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와 포도 심을 동산같이 만들어 버리실 것이며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버려서 그 지대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을 비유한 말이다.
- (3)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목을 굳게 하였던 이스라엘은 호세아(B.C. 732-722)를 마지막 왕으로 B.C. 722년 앗수르의 살만에셀 3세(Shalmaneser III)에게 멸망을 당하였다(왕상17:1-23).
- (4) 한편 이 미가 이외에도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하리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참조, 왕상14:15, 16; 사28:1-4; 호1:6, 9, 16; 암 3:11-15; 5:27)이 많이 있다.

8.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우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 새긴 우상을 모두 파괴하시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시며 그 목상을 다 훼파(毀破)하실 것이다.
- (2)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시고 우상에게 바친 예물을 불에 태우실 것을 뜻한다(참조, 사 37:19).
- (3) 당시 타락한 백성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한 덕택에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 행복이 유지된다고 자랑하였다(참조, 호 2:5).
- (4) 그러나 이 같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음행, 즉 영적 간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마리아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호 2:18; 9:1).
- (5) 한편 이와 같이 그들이 손으로 새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더불어 자신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다(겔12:2).

9. **㉠**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미가는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8절)

- ㉠** (1) 미가는 자신의 슬픔을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자신의 슬픔을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 (2) 여기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는 미가의 모습은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옷도 입지 못한 채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극도로 미련해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보복을 보여 주어 깨닫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참조, 사 20:2-4).
- (3) 이처럼 미가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에서 떠났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자신과 같은 동족이었으므로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여 자기의 옷을 찢어 내던지면서 애통하였다.
- (4) 오늘날 주를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범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자들의 영적 무지를 안타까와하면서 이들의 무지를 깨우칠`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엡 5:14).

## 10. ㉠ 미가가 애곡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이 입은 상처가 매우 치명적이어서 고칠 수 없으며 그 상처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그 상처'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때문에 내린 재앙인 앓수르의 침략을 의미한다.
- (3) 즉 이는 산헤립의 지휘를 받는 앓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유다를 침략하며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가리킨다.
- (4)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며 그로 인해 생긴 죄의 상처(참조, 잠6:43; 23:29; 사1:6)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낫게 할 자가 없다.

## 11. ㉠ 미가가 이스라엘의 상처를 가드에 고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가드가 블레셋 성읍이기 때문에 그 성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앓수르의 공격을 받아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참조, 삼상 5:8; 왕하 12:17; 시 25:3; 애 2:17).
- (2) 한편 가드는 블레셋 평원에 있는 다섯 성읍 중의 하나로 예루살렘 남서쪽 약 42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블레셋은 삼손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주된 적으로 등장하였는데 다윗이 가드를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고 솔로몬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관할하에 있었다(삿 13-16장; 대상 18:1; 왕상 2:39, 40).
- (3) 그 후 다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와 유다 왕 웃시야(B.C. 790-739)와 히스기야(B.C. 728-697)에 의해 한때 유다의 영토가 되기도 했지만 그 후 다시 빼앗겼다(왕하 18:8).
- (4)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백성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더욱 괴롭힐 기회를 찾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 (5) 오늘날에도 불신 세력들은 성도의 허물이나 슬픔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1:20).

## 12. ㉠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빌 거민'은 어떤 처국을 당할 것인가? (11절)

- ㉠ (1) 그때에 '사빌 거민'은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릎쓰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 (2) 한편 '사빌'은 히브리어로 <샤피르>인데 이것은 '단아하고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지닌 예루살렘 북편에 있는 변화한 도시를 가리킨다.
- (3)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즉 앓수르의 공격을 받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읍이라 하더라도 그곳의 거민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재물을 챙기거나 옷 입을 여유조차 없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 (4)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월이 흘러가면 변하는 외적인 단아함이나 아름다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마음을 원하신다(벧전 2:2).

## 13. ㉠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아난 거민'은 어떻게 되는가? (11절)

- ㉠ (1)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아난 거민'은 성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 (2) 한편 '사아난'은 유다 남쪽, 라기스의 스펠라(Shephelah) 평지 내에 있는 유다 지파의 촌락으로서 '스난'이라고도 불렀다(수 15:37).
- (3) 그러므로 '사아난' 거민이 성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이 앓수르의 무시무시한 침략 앞에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여 앓수르인과 싸우기 위해 전장터로 이동하거나 목숨을 보존키 위해 도망할 생각도 못한 채 처소에서 움직이지 못할 것을 뜻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산 사람들의 결과는 완전한 패망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겔 18:30; 호 4:14).

14. ㉠ ‘마릇 거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무엇을 바라게 되는가? (12절)

- ㉠ (1) 근심 중에 복을 바라게 된다.  
 (2) 한편 마릇은 ‘쓴 맛’, ‘쓰라림’, ‘비통’이란 뜻을 지닌 것으로서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성읍을 말한다.  
 (3) 또한 ‘바라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홀>은 ‘슬퍼한다’, ‘기대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이처럼 ‘마릇 거민’은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이 같은 재앙에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침략을 받고 잃어버린 재산을 생각하며 슬퍼할 것이다.  
 (5)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릇’이란 말의 의미대로 고통을 받고 온갖 쓰라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다.  
 (6)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할 때에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렘 34:15-17).

15. ㉠ ‘라기스 거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13절)

- ㉠ (1) 그들은 앗수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준마(駿馬)에 버거를 댄 것이다.  
 (2) 이것은 곧 ‘라기스’가 포위 공격을 받고 앗수르 왕 산헤립(Sennacherib, B.C. 705-681)에게 함락된 것이므로 그곳의 거민들이 피난하게 될 것을 뜻한다(사36:2;37:8).  
 (3) 라기스는 유다 구릉 지대 서쪽 경사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 구릉 지대 밑에 위치한 계곡에는 지면 가까이에 물이 있어 언제나 말에게 물을 먹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4) 그러나 라기스가 유다의 성읍 중 최초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를 예루살렘에까지 전한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앗수르를 이용해 징계하셨다(6:16).  
 (5) B.C. 700년경 신헤립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군사를 주둔시켰는데 최근에 탐사를 통하여 라기스 성에 큰 불이 일어났던 흔적과 화살촉, 투서기, 창끝 앗수르인의 청동 투구 장식품이 라기스로 들어가는 길에 두꺼운 잿더미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산헤립의 공격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여 준다.  
 (6) 한편 ‘라기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유다의 성읍이면서도 범죄에 솔선 수범했듯이 오늘날에도 택함 받은 신자라 하면서 거리낌없이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도 ‘라기스’가 패망한 것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마5:13).

16. ㉠ ‘마레사’에 있던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

- ㉠ (1) 장차 ‘마레사’를 얻은 자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들람’까지 이를 것이다.  
 (2) 여기서 ‘마레사를 얻은 자’란 앗수르 군대를 가리키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의미한다.  
 (3) 한편 ‘마레사’는 히브리어로 <아라쉬>인데 ‘소유’를 뜻하며 ‘아들람’은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숨었던 동굴을 가리킨다(삼상 22:1).  
 (4) 미가가 여기서 ‘아들람’을 인용한 것은 앗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될 ‘마레사’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파멸과 수치를 면키 위해 유다의 귀족들이 ‘아들람’으로 피신할 것을 예언하기 위함이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 날에 존귀한 자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아지게 하시며 지혜있는 자를 미련하게 만드실 것이다(참조, 마 23:12; 눅 14:11).  
 (6)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겸비할 줄 알아야 한다(고전 10:12).

## 제 2 장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형벌

단락구분 1-2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악 / 3-6 멸망의 애가(哀歌) / 7-11 우상을 따른 죄악을 지적하다 / 12-13 야곱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다

1 침상에서 악을 피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확대하다

3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 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노니 너희의 목이 이에 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히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4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느도다 하리니

5 그러므로 여호와와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밀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6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어늘 육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7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와 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

게 유익되지 아니하나

8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9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10 이것이 너희의 쉼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11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론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가 되리도다

12 야곱아 내가 정녕히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녕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 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 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13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 1. ㉠ 본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악과 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게 될 형벌 그리고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확대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며 진리를 듣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1, 2, 8, 9, 11절). 이 같은 백성들의 타락한 행위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였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더 이상 당신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셨다(3, 5, 10절).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남은 자 곧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끗해진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희망의 약속을 하셨다(12, 13절).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는 준엄하게 징계하시지만 그러한 징계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 2. ㉠ 미가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가? (1절)

- ㉠ (1) '침상에서 악을 피하며 간사(奸詐)를 경영(經營)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악한 권력자들은 하루의 일을 반성하며 안식을 취하여야 할 침상에서조차도 악한 생각을 하였다(참조, 시 36:4).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날이 밝아올 때 기도르써 하루를 시작하기 보다는(시 5:3) 먼저 죄악을 계획하였다.
- (3) 더우기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그 손의 힘'이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였다.
- (4)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였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뿐 아니라 침상에서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한다(시 63:6).

3. **㉠** 악한 권력자들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어떤 횡패를 저질렀는가? (2절)

- ㉠** (1) 동족의 밭과 집을 탐하여 빼앗고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확대하였다.
- (2) 즉 그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참조, 함 2:5) 유산으로 물려받은 남의 토지와 가옥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참조, 왕상 21:1-16).
- (3) 이와 같은 그들의 죄악은 백성들에게 심한 원성을 샀으며, 민족적 번영과 대중 생활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었다.
- (4) 그러나 성도들은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참조, 출 20:17) 도리어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신 15:7, 8).

4. **㉠** '이 족속'은 재앙의 때에 어떻게 되는가? (3절)

- ㉠** (1) '이 족속'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빠져 나갈 생각도 못 하며 교만히 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 (2) 한편 여기서 '이 족속'이란 국가를 대표하는 고관, 귀인들을 가리킨다.
- (3) 결국 본질은 하나님께서 동족을 확대했던 저들의 목에 부거운 멍에를 지우셔서 목을 빼거나 움직일 수 없게 하실 것을 의미한다.
- (4) 실제로 이 예언은 저들이 하나님의 재앙 곧 앗수르의 침략을 받아 소처럼 목에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므로 성취되었다(참조, 렘 27:11, 12).
- (5) 이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악인들은 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시 1:5; 딤후 5:24).
- (6)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여호와와의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눅 12:37).

5. **㉠**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될 애가는 무엇인가? (4절)

- ㉠** (1)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날에 부르게 될 애가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도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 (2) 즉 그들은 이스라엘의 분깃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거두어 가셨으므로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 (3)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그들의 소유였던 가나안 땅이 앗수르의 소유가 될 것을 의미한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불의를 행하는 자에겐 그에 합당한 불의의 보응을 하신다(골 3:25).

6. **㉠** '여호와와의 심판 날'에 악인들이 재비를 뽑고 줄을 띠어도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A** (1) '여호와의 심판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제비를 뽑아 땅을 측량해 가지지만 악인들에게는 돌아갈 몫이 없다.
- (2) 여기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받는다라는 의미로서 가나안 땅을 나누던 방식을 가리킨다(참조, 민34:13; 사34:17).
- (3) 이처럼 악인들은 심판 날에 분깃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명칭은 지니고 있지만 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
- (4) 한편 여기서 분깃을 분배받지 못한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불신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다(참조, 눅9:26).
- (5) 또한 우리는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진노하실 때 때로는 그들의 분깃을 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합3:13).
- 7. C**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미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6절)
- A** (1) 그들은 미가에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수치를 당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 같은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 (2) 즉 그들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장자'(출4:22, 23)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절대로 심판이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 (3) 이처럼 그들은 미가를 통하여 심판의 경고를 하시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였다.
- (4) 이와 같이 악한 인간들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를 도리어 핍박한다(참조, 사30:10; 암7:10-13; 행5:40).
- (5)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것'은 곧 사신 우상(邪神偶像)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죄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삼상15:23).
- 8. C** 미가는 예언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7절)
- A** (1)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 결코 성급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 (2) 이것은 곧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백성임을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말이다.
- (3) 한편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 (4)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여전히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참조, 시119:105).
- 9. C** 이스라엘 백성은 근래(近來)에 동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8절)
- A** (1)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행인들의 옷을 탈취하는 강도질을 자행했다.
- (2) 여기서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라는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행을 저질렀다는 의미이며 또한 이같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끊어 버리시고 그들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선포하실 것을 의미한다.
- (3) 그리고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는 피난민을 가리킨다. 이처럼 타락한 백성이 전쟁을 피하여 도망가는, 즉 빈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도질을 한 것은 무자비한 행위이다.
- (4) 한편 이것은 근래에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의 생활이 전쟁 때와 같이 포악한 삶이었음을 보여 준다. 즉 전쟁 후 탈취물을 나누던 것이 당시 그들의 풍속이었다(참조, 신20:14).

- (5) 또한 이것은 백성들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강도질을 자행한 것이다.
- (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결코 세상에 나가서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 ㉠ 타락한 백성들은 이웃의 부녀와 그 어린 자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9절)**

- ㉠** (1) 그들은 이웃의 부녀들을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갔다.
- (2) 여기서 '부녀'란 과부를 가리키는데 사악한 자들은 의지할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알아 보아 그들을 괴롭히며 집을 탈취하였다(참조, 사10:2).
- (3) 또한 그들은 '그 어린 자녀', 즉 고아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아 버렸다. 그래서 고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다(참조, 왕상4:1).
- (4) 이와 같은 행위들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다(출22:22).
- (5) 한편 신약 시대에도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적용된다(딤후전 5:3-16; 약1:27).

**11. ㉠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서 떠나라고 명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멀리 쫓아 보내시려고 작정하셨음을 의미한다.
- (3) 본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요, 안식처였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심으로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도, 안식처도 될 수 없는 것이다.
- (4) 한편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B. C. 722년에 앗수르에게 멸망당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 (5)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못 사용할 때엔 도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사용하여야 한다(참조, 마 25:14-30).

**12. ㉠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를 그들의 선지자로 세웠는가?(11절)**

- ㉠** (1) 그들은 허망(虛妄)히 행하고 백성들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를 자신들의 선지자로 세웠다.
- (2)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 이 세상의 복락과 감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한다(참조, 잠 20:1; 사56:12).
- (3) 이처럼 타락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며 회개를 외친 선지자 미가보다 이 세상의 평안을 들려주며 거짓된 아침으로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들을 좋아했다.
- (4) 그러나 포도주와 독주는 처음에는 달콤하며 맛있지만 많이 마실 때엔 우리들의 이성을 마비시켜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아침과 거짓말을 듣기 좋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참조, 잠 21:17; 사28:7).
- (5) 그런데 샅군 목자가 세상적인 쾌락이나 거짓말을 선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샅군 목자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 (6)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외치는 샅군 목자와 더불어 타락한 사람들을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다(참조, 렘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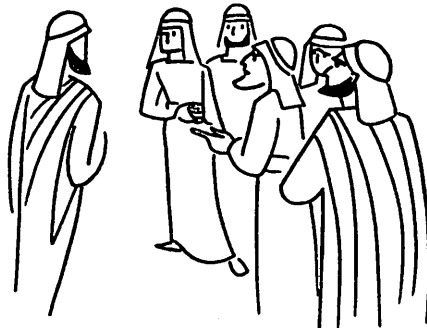
1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정녕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스라와 초장(草場)의 양 떼같이 모으시고 한 처소에 두셔서 그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하실 것이다.
- (2) 여기서 '남은 자'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중에서 시련을 통해 회개하고 깨끗해진 자를 의미하며(참조, 10:20, 21), '보스라'는 매우 비옥하고 가장 좋은 초장이 있는 에돔 족속의 한 도시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보스라의 양 떼같이, 초장의 양 떼같이 한 처소에 모으실 것이다. 여기서 한 처소에 모으신다는 것은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양은 흩어지고 각기 제길로 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참조, 사 53:6).
- (4)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옴으로 일부가 실현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 (5) 우리는 본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릇된 길로 갔을 지라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4. ㉠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손에서 남은 자를 어떻게 구하실 것인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적을 물리치시며 앞장서서 스스로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 내실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앞길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가리킨다.
- (3)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유다 백성이 B. C. 538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옴으로 성취가 되었다(참조, 대하 36:22, 23; 스 1:1-4).
- (4)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참조, 마 4:16; 골 1:13).

본장의 요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어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6절).

# 제 3 장 지도자들의 범죄로 인한 예루살렘의 파멸

단락구분 1-4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 / 5-7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 / 8 짐된 선지자의 모습 / 9-12 예루살렘의 장래

1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이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나

2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술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4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5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저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 선전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될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치 아니하시시어니와

8 오직 나는 여호와와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9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1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2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발같이 값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줍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을 말하라.

㉠ (1) 본장에서 미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여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물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다.

(2) 미가 당시 지도자와 관리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백성들에게 학정(虐政)을 베풀었고,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여 회개시키기 보다는 거짓을 증거하였다.

(3) 그런데 이와 같은 부패의 근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2. ㉠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으셨는가? (1절)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두령과 치리자들이 공의를 알지 못하기에 꾸짖으셨다.

(2) 여기서 '공의'란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선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3)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공의를 사랑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불의를 행하였다(참조, 렘 5:5; 겔 22:27).

(4) 이같이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한 까닭이다.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무리들에게 그들의 행위의 악한 분

량대로 보우하시실 것이다.

- (6) 오늘날에도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재물을 모으고 부정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자기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명과 재산과 권력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분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대상 29:12).

3. **㉠**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어떤 악을 행했는가? (2, 3절)

- ㉠** (1)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백성들의 가축을 벗기고 그 때에서 살을 뜯어 짐승처럼 살을 먹으며, 그 가축을 벗겨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술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였다.
- (2) 여기서 미가는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불의한 지도자들을 도살한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도살 업자로 비유하였으며 또한 잡은 고기를 뜯어 먹는 짐승으로 비유하였다.
- (3) 이와 같은 비유의 이유는 그들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가혹하게 징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백성들의 생계 수단을 강제로 빼앗아 그 가족들을 파멸시키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 (4) 이 같은 행위들은 공의의 법을 알면서도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참조, 렘 17:9).

4. **㉠**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 악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우하시는가? (4절)

- ㉠** (1)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실 것이다.
- (2) 여기에서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으실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믿음과 회개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자비를 철회하시고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것을 가리킨다(참조, 신 31:17; 사 1:15).
- (4)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한 행위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한 자비의 손을 거두신다는 말이다.
- (5)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야 할 것과 기도할 때에 참된 믿음과 회개로써 겸손히 할 것을 교훈하신다(신 8:3; 약 2:17).

5. **㉠**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는 어떠하였는가? (5절)

- ㉠** (1) 그들은 먹을 것을 주는 자에게는 평강을 외치나 그 입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예언하였다.
- (2) 본절에서 미가는 앞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의 그릇된 예언 활동(2:6,11)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3) 미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도덕적, 정신적 향상보다는 한 조각의 떡을 위해 백성들을 속여 변명과 구원을 예언하였다.
- (4)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헛된 것을 가르쳤다(참조, 사 9:15; 렘 5:31).
- (5)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주의 일하는 것을 소명이 아닌 하나의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설교는 생명력이 없다(참조, 마 24:24; 눅 16:14).

6. **㉠** 심판이 임하는 날 거짓을 예언하던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 위의 해를 지게 하심으로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밤을 만나 이상(異象)을 보지 못하며 흑암(黑暗)을 만나 점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해'는 변명과 구원을 상징하고 '낮이 캄캄하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곧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참조, 렘 15:9). 그리고 '이상'이라고 번역된 히

브리어 (하존)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계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환상 중에 이상한 현상을 보고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는 것을 가리킨다.

- (3)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예언하며 백성들을 흑암 중에 있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인해 그들의 예언이 거짓임이 탄로나게 하시고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 (4)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무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며 영적으로 어둠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러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참조, 롬 2:18; 고전 2:14).

7. **㉠**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선견자와 술객들은 어떻게 되는가? (7절)

- ㉠** (1) 그때 선견자는 부끄러워하며 술객(術客)은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이다.
- (2) 또한 그 동안 평강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 거짓으로 판명될 뿐 아니라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해 낼 방법을 찾아 보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 (3) 그러므로 그들은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여도 아무런 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는 비진리에 속하는 모든 예언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참조, 사 44:25).

8. **㉠** 여호와와 신은 미가를 어떻게 도와 주실 것인가? (8절)

- ㉠** (1) 여호와와 신은 미가에게 권능(權能)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 (2) 여기서 재능이란 히브리어로 (게부라)인데 ‘힘’, 즉 사람들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고 증언하는 ‘용기’를 의미한다.
- (3) 미가는 그의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와 영이시고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 (4)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와 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였다(렘 5:13; 겔 13:3).
- (5)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 주심을 깨닫고 복음을 선포할 때 담대히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이다(참조, 행 1:8; 4:33).

9. **㉠** 미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8절)

- ㉠** (1) 미가는 백성들에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 줄 것이다.
- (2) 즉 미가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식마저 무디어져 가는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권고할 것이었다.
- (3) 이와 같이 죄에 대해 격렬한 적대감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던 미가는 거짓 예언을 하며 자신의 식물(食物)을 해결하기 위해 평안을 외쳐 환심을 산 거짓 예언자들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 (4) 이처럼 미가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던 하나님께선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허물과 죄를 지적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참조, 요 17:17; 골 3:16).

10. **㉠** 미가는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9절)

- ㉠** (1) 미가는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를 가리켜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미가가 권력을 잡고 있는 악한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악한 지도자들은 공평과 의를 행하여서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 없었으므로 백성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강탈하고 뇌물을 위해 재판하며 샴을 위해 교훈하였다(11절).

(4) 오늘날에도 우리는 미가와 같이 악한 것을 가리켜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참조, 딤편5:20).

11. ㉠ 악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건축하였는가? (10점)

- ㉠ (1) 악한 지도자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다.  
 (2)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시적인 표현이며 '피'는 죄악을 의미한다.  
 (3)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구실 아래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고 뇌물을 받았다. 이같이 백성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며 압박과 강포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곧 죄악으로 세워지는 성전으로밖에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케 하시며 파괴하실 것이다(참조, 렘22:13).  
 (5) 여기서 우리는 일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엔 불의한 자들이 번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와 같은 불의의 낙(樂)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선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2. ㉠ 부패한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11점)

- ㉠ (1) 부패한 지도자들은 오로지 물질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2) 한편 본절에 나타나는 그들의 부패한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려야 할 방백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여 죄없는 가난한 사람을 해쳤다(참조, 시15:5).  
 (3) 둘째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며 모든 제사를 집행해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며 백성들에게 샴을 위하여 교훈하였다(참조, 렘5:31).  
 (4) 세째로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해야 할 선지자들이 오히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을 예언하였다.  
 (5) 이와 같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쳐야 할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물질을 사랑하였다(렘6:13).  
 (6)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며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에 지배받기 보다는 물질을 지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딤편6:10).

13. ㉠ 부패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11점)

- ㉠ (1) 부패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니 재앙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2) 즉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심으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신앙이며 주장이었다(사48:2; 렘7:4).  
 (3) 이러한 그들의 신앙은 B.C.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앗시리아 왕 산헤립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으로 패주한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왕하18:13-19:37). 그러나 이 사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었다.  
 (4)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그릇된 신앙에 도취해 회개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을 말하며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다.  
 (5) 성도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거짓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을 경계해야 한다(참조, 마2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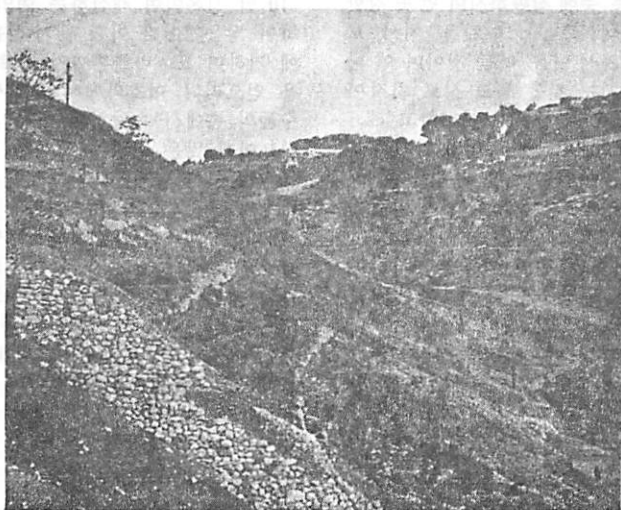
14. ㉠ 하나님께서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어떤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는가? (12점)

- ㉠ (1)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시온을 '갈아엮은 밭'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

- 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며, 성전 언덕은 잡초로 뒤덮이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 (2) 본절에서 미가는 사마리아에게 했던 멸망의 얘기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고 있다(1:6).
- (3) 이것은 피로 세워진 시온과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여 잿더미만 남게 되고 성읍이 서 있었던 언덕은 들판이 되며 수풀이 뒤덮일 것을 가리킨다.
- (4) 이처럼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Nebuchadnezzar II, B.C. 605-562)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다(참조, 대하 36:6-20; 렘52:12-27).
- (5) 오늘날 타락한 지도자와 교사들의 부패는 자신 뿐 아니라 남들까지도 죽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참조, 마 23:13; 눅 12:42).

## 화보자료

돌무더기. 이스라엘 왕정(王政) 시대에 쌓아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허물어져 돌무더기만을 이루고 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이다. 그는 사마리아가 ‘들의 무더기’(1:6)같이 되리라고 예언하였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12절)라고 예언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사마리아와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할 종교인들이 도리어 그들을 거짓된 교훈으로 미혹하였기 때문이다(5절). 이와 같이 의(義)의 최후의 보루(堡壘)이어야 할 종교인들마저 타락해 버리면 그 나라의 장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를 지켜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약 1:27).

## 제 4 장 그리스도의 왕국

단락구분 1-2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하여 / 3-5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다 / 6-7 이스라엘이 회복되다 / 8-13 택하신 백성의 승리

1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3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6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의 자를 모으며 쫓겨 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7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 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8 너 양 떼의 방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9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나

10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 하여 놓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11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기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12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뺨을 칠 같게 하며 네 굵을 늦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은 땅의 대주께 돌리리라

###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징벌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남은 자를 모아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제시되어 있다.

(2) 마지막 날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 성전이 서 있는 산으로 밀려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찾아오며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게 될 것이다(1-5절).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처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을 시온으로 다 모으셔서 직접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실 것이다(6-13절).

(4) 이와 같은 모습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져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욕망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 2. ㉠ 말일(末日)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1절)

㉠ (1) 말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말일’은 히브리어 <아하리드 하야림>으로 구약 시대의 끝, 즉 메시아의 때를 가리키며, ‘산들’은 열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믿는 자의 무리가 함께 있는 곳, 즉 교회를 가리킨다(참조, 호 3:5; 행 2:16-21; 히 1:2).
- (3) 이것은 곧 초림(初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세워질 것을 의미한다.
- (4)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는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를 무너뜨리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참조, 시 87:1; 마 16:18).

### 3. ㉠ 말일에는 민족들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1절)

- ㉠ (1) 말일에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산을 향하여 몰려 갈 것이다.
- (2) 이것은 많은 이방인들이 자원해서 개종할 것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으며 이로써 그리스도의 왕국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참조, 행 10:45; 15:7; 롬 9:24; 계 11:15).
- (4) 한편 성도들은 세상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세상의 향락보다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히 10:23-25).

### 4. ㉠ 말일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가면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2절)

- ㉠ (1) 그들은 서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道)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따르리라’는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 때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즉 많은 이방인들이 자진하여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 (3)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직접적으로는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는 교사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진리 안에 거하며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참조, 마 4:23; 요 3:2; 고전 12:28; 요 1:4; 요삼 1:3).
- (4) 한편 성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웃에게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행 1:8; 딤후 4:2).

### 5. ㉠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될 곳은 어디인가? (2절)

- ㉠ (1)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 (2)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과 같은 뜻이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복음을 가리킨다.
- (3) 한편 구약 시대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이었다.
- (4)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율법을 반대하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마 5:17).
- (5)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도 받지 않는다면 참된 의미에 있어서 교회라고 할 수 없다(엡 1:23; 5:24, 25).

### 6. ㉠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될 것인가? (4절)

- ㉠ (1)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두렵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 (2) 여기서 미가는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누린 평화롭고 안락한 시대를 인용하여서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누릴 평화와 안전을 묘사하였다(왕상 4:25).



(3) 이 같은 모습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通用)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행 2:42-47).

(4) 오늘날 교회에서 각 성도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각자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참조, 눅 17:21; 엠 3:17).

7. **㉠**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여 행할 것인가? (5절)

**㉠** (1) 모든 민족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살 것이다.

(2) 여기서 미가는 미래의 교회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즉 주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가리킨다.

(3) 이처럼 미가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만연하고 있던 우상 숭배 행위를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고하였다.

8. **㉠** 말일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와 쫓겨 난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6, 7절)

**㉠** (1)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를 모아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며 쫓겨 난 자와 환난당한 자들을 모으셔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2) ‘저는 자’, ‘쫓겨 난 자’, ‘환난당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기간에 겪을 고통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들을 고치시며 크게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3) 이것은 절며 끈고하며 흠어진 양 떼와 같았던 구약 말기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고 그의 사도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떼들에게 보내심으로 인하여 다시 공고히 세워질 것을 가리킨다(마 10:6).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 즉 자기를 부정하는 자를 공표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6:8; 시 147:6; 눅 14:10).

9. **㉠** 이전 권능이 누구에게로 돌아올 것인가? (8절)

**㉠** (1) 이전 권능이 양 떼의 망대(望臺), 즉 시온의 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2) 여기서 ‘이전 권능’이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강함을 가리키며 ‘양 떼의 망대’는 목자가 자기 양들을 망대에서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흠어진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적 예루살렘 곧 교회를 가리킨다(참조, 사 40:11).

(3)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외면적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잠시 평안을 누리며 번영하였지만(참조, 왕상 4:20-28)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왕의 권위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그 나라는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 왕국보다 더 영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재물이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살아야 한다(골 3:16).

10. **㉠** 유다 백성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1)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사라졌고 모사(謀士)가 죽었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상징되는 왕과 모사가 사라지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과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축복이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

(3) 즉 이스라엘은 곧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왕권을 상실케 될 것이며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4) 그러나 이 말씀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중에도 아이의 출산을 소망하듯 유다 백성들

도 장래의 소망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 우리들은 세상의 통치자나 상황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므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참조, 합3:17-19).

11. **㉠**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어떤 긍휼을 베푸실 것인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손, 즉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구해 내실 것이다.  
 (2) 이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는 사실을 가리킨다. 즉 바벨론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메대 바사의 황제 고레스(Cyrus, B.C. 558-529)가 유다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사실을 가리킨다(대하 36:22, 23; 스 1:1-4).  
 (3) 본절에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하시겠다는 약속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당시 바벨론은 강력한 앗수르 제국의 속국에 불과했으므로 이 같은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예언은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불신앙 세력 아래 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출하시니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시 71:23).

12. **㉠**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11절)

- ㉠** (1) 시온을 더럽혀서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더럽혀서 시온의 거룩함이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기 원하는 것이다.  
 (2)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고 그들이 타락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고통으로 낙심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동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시기한다(욘 1:9-11; 요 13:2).  
 (3) 이러한 특성은 B.C. 445년 예루살렘 성전 재건시 이웃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기 위하여 성을 훼손하고 성문을 불에 태우는 사건에서도 나타나 있다(참조, 느 1:3).  
 (4) 이 사단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계교로써 시험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내셨다(마 4:1-10).  
 (5) 오늘날도 불신자들은 신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세상의 법에 처벌을 받을 경우 그것을 확대하고 문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자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이다(벧전 5:8, 9).

13. **㉠**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모르는 이방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12,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아서 딸 시온을 일으키시사 시온의 뿔을 철(鐵) 같게 하며 굵은 놋 같게 하여 그들을 깨뜨리실 것이다.  
 (2) 미가는 당시 곡식을 밟아 떠는 타작 풍속을 인용하여서 이방 나라들을 타작 마당에서 짓밟히는 곡식단에 비유하며 시온을 타작 기계, 즉 황소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이방 나라를 짓밟아 버릴 것을 예언하였다.  
 (3) 또한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을 가리킨다(제 20:1-3).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성도들은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히 12:2).

14. **㉠** 시온은 이방 세력으로부터 탈취한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3절)

- ㉠** (1) 시온은 이방 세력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재(大主宰)께 돌릴 것이다.  
 (2)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원수를 이기고 획득한 탈취물 가운데 미디안의 경우처럼 일부를(민 31:28), 또는 여리고의 경우처럼 전부를(수 6:17)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가리킨다(참조, 레 27:28; 사 23:18).

- (3) 여기서 탈취물은 히브리어 (헤람)으로 토지와 가축과 집 등의 온갖 소유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래 '재산'을 의미한다.
- (4)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고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오며 그들의 재물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짐으로 성취된다(골 1:13).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해야 할 것이다(고전 10:31).

### 화보자료

낫을 든 촌로(村老). 자신이 만든 낫을 들고서 즐거워하는 한 대장장이의 모습이다.



본장에서 미가는 훗날에 이룩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말일에 이르러는...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1-4절).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고 보습이나 낫과 같은 농기구만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그 왕국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일 것을 의미한다(참조, 계 21:1-4).

## 제 5 장 영원한 평화의 왕 그리스도

타락구분 1 바벨론이 유다를 매질하다 / 2-3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출생이 예언되다 / 4-6 평강의 주와 삼편자가 되신 메시아 / 7-9 메시아에게 속한 백성들의 승리 / 10-15 회복된 이스라엘

1 딸 군대여 너는 폐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땅을 치리리다

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3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 그가 여호와와 능력이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폐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5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6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7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

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9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1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팔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꺾파하며

11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12 내가 또 복술을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장이 없게 될 것이며

13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4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의 중에서 빼 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15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춘치 아니한 나라에 갓으리라 하셨느니라

### 1. ㉠ 본장의 중요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유다 백성의 환난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 남은 자들의 회복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의 백성을 정화시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미가는 멀지 않아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환난을 당하며 슬픔에 잠길 것이지만 그런 중에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예언하였다.
- (3) 그 소망이란 다름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4)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모아진 백성들에게 대적을 정복하고 이방 풍속들로부터 깨끗하게 할 힘을 주시며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실 때에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참조, 골 3:15)

2. **㉠** 이스라엘 재판자는 대적에게 어떤 수치를 당할 것인가? (1절)

- ㉠** (1) 이스라엘 재판자는 대적에게 포위를 당해 막대기로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2) 여기서 ‘대적’은 바벨론을, ‘이스라엘 재판관’은 유다를 대표하는 시드기야(B.C.597-586) 왕을 가리킨다. 그리고 ‘뺨을 치는 것’은 최대의 모욕으로 유다 백성이 받게 될 수치와 환난을 의미한다(참조, 왕상 22:24; 욥 16:10).  
 (3) 이와 같은 미가의 예언은 유다의 대적 바벨론이 B.C.587년 1월부터 시작해 약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함락시켰을 뿐 아니라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과 모든 귀인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감으로 실제로 성취되었다(왕하 25:1-4, 7; 렘 39:1, 2, 6, 7).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권유를 거스르는 자에겐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참조, 3:1-12; 왕하 24:19).  
 (5) 한편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 중 자기 죄와 부정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 아니라 그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이다(렘 23:40; 겔 22:5).

3. **㉠**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어디로부터 탄생하실 것인가? (2절)

- ㉠** (1)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2)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고대 이름으로서 두 지명 모두 중요로움을 나타낸다. 즉 베들레헴은 ‘떡집’ (the house of bread)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창 35:16, 19; 룻 4:11).  
 (3)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실 뿐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 밭을 살찌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렘 3:17).  
 (4) 이와 같이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은 그가 비천한 자를 높이기 위하여 오실 것을 가리킨다(눅 1:52).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주민수가 적고 매우 조그마한 마을로서 명예를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심으로 어떤 다른 촌보다 명예롭게 되었다(참조, 마 2:6).  
 (5) 하나님께서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듯이 우리가 하나님앞에 작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시 147:6).

4. **㉠**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의 근본은 어디인가? (2절)

- ㉠** (1) 그의 근본은 상고(上古) 곧 태초(太初)부터이다.  
 (2) 여기서 히브리어로 <미케덱 미메 올람>인 ‘상고에’, ‘태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기 전 곧 태초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음을 가리킨다(참조, 함 1; 12).  
 (3) 이처럼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보다 선재(先在)하신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聖子) 하나님이셨다(요 1:1-3).  
 (4)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 1:14).

5. **㉠**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언제 회복시키실 것인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곧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을 임산(臨産)한 여인이 해산의 진통을 겪은 다음 아이를 낳듯 고통을 당하게 한 후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노예와 같이 학대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을 때 다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가리킨다(참조, 렘 25:11).  
 (3) 또한 이 말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가리킨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역경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마 24:13; 28:20).

6. **㉠**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4, 5절)

- ㉠** (1)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땅끝까지 통치하며 모든 백성에게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는 말이며, 이사야는 그를 가리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였다(사 9:6).
- (3) 한편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가 될 것을 가리킨다. 즉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던 죄인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후 5:19; 엡 2:12-18).
- (4) 또한 그는 목자가 되셔서 양 떼에게 좋은 풀, 즉 영혼의 양식을 먹여 주실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가리킨다(참조, 겔 34:14; 요 6:32-51; 고전 10:3, 4).
- (5) 또한 미래에 심판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는 땅끝까지 곧 그를 믿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복음으로 통치하실 것인데, 그의 통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것이 될 것이다(사 9:6, 7).
- (6)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망각한 채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다. 우리 모두는 평강의 왕을 섬기는 한 백성,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 끌어야 할 것이다(엡 5:2).

7. **㉠** 야곱의 남은 자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7절)

- ㉠** (1) 그들은 하나님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것이다.
- (2) 여기서 ‘짐승’이나 ‘양’은 이방 나라를 가리키며, ‘사자’는 야곱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데 이 야곱의 남은 자는 이방 나라들보다 우세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다.
- (3) 이 힘은 사자처럼 난폭하고 잔인하게 발휘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영적 원수들이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참조, 눅 21:15).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권세와 명예와 돈 등 세상의 모든 욕심을 이겨 낼 수 있다(참조, 갈 5:16, 24).

8. **㉠** 열국 중에 거하는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8절)

- ㉠** (1) 야곱의 남은 자는 숲속 짐승들 틈에 나선 사자와 양 떼 가운데 뛰어난 젊은 사자같이 이리저리 오가며 짓밟고 찢을 때에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 (2) 여기서 ‘이슬’과 ‘단비’는 하늘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고 순수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인간의 도움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가리킨다.
- (3) 뿐만 아니라 이슬과 단비가 풀에게 축복이 되어 인생의 도움 없이 풀을 자라게 함같이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웃을 위해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이다.

9. **㉠**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남은 자들이 대적을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남은 자들의 손이 대적 위에 들러서 모든 원수를 진멸(殄滅)하기를 바라신다.
- (2)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앗수르의 포로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잔인한 폭군의 통치를 받았다.
- (3) 그러나 B. C. 2세기경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헬레니즘 문화와 제국주의를 대항해서 성전을 재봉헌하고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권세를 진멸시키는 전조가 되었다(외경 마카비상 4:28-59).
- (4) 그 후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세상, 즉 원수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
- (5) 한편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원수들은 완전하게 진멸될 것이다(참조, 벧후 2:9).
- (6)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원수를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창 1:28).

10. Ⓞ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의지했던 말과 병거(兵車)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멸절(滅絶)하며 그들의 병거를 궤파(毀破)하실 것이다.
- (2) 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인 앗수르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인 방법, 즉 애굽에 원조를 청하여 그들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였다(사 31:1-3).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말과 병거를 제거하심으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실 것이다(참조, 사 31:1-3).
- (4)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을 의존하여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가실 것이다(참조, 잠 11:28).

11. Ⓞ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진멸하실 때 백성들이 의지했던 성읍들과 견고한 성읍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을 멸하시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 (2) 여기서 ‘성읍들’이나 ‘견고한 성들’은 전쟁에 필요한 요새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략을 대비하여 많은 요새를 건설하였다.
- (3) 그러나 문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요새를 건설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 요새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다는 데 있다(참조, 8:14).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도성들과 요새화된 진지(陣地)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실 것이다(렘 5:17).
- (5) 또한 이는 신약 시대에 세워질 교회에서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높은 망대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가리킨다.
- (6) 한편 하나님께서 성읍들과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린 것은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린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왕하 18:21; 사 50:10).

12. Ⓞ 백성들을 미혹했던 점장이나 마법사는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백성들을 미혹하는 마법사나 점장이를 없애실 것이다.
- (2) 당시 근동 지역 특히 애굽과 바벨론에서는 마술이나 점술 등이 성행하고 있었다(참조, 신 18:10-13; 사 2:6).
- (3)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점과 마술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레 20:27; 신 18:10) 후

에 이런 풍속이 들어와 호부(護符)나 활, 주문, 성수(聖水) 등으로 점을 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마술과 거짓 환상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미신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다(참조, 사8:19; 겔13:17-23).

- (4) 이러한 점이나 마술의 힘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귀신과 온갖 더러운 악령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력해졌다(히 2:14).
- (5) 또한 하나님께서 술객들을 천국에서도 제하여 버리심으로 완전히 패망케 하실 것이다(계 22:15).
- (6)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미신을 좃고 점을 보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참조, 롬 2:22).

**13. ㉠ 하나님께서는 신으로 섬겼던 우상과 주상(柱像)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주상을 멸절하여 다시는 그것들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 (2) 당시 백성들간에는 자신들의 손으로 세공한 우상과, 신접(神接)해 있다고 여겼던 다듬지 않은 돌기둥을 신으로 숭배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다(참조, 왕하 10:26, 27; 사 30:22; 40:18-20; 44:13).
- (3) 이러한 행위는 십계명 중 제 2 계명을 어기는 것(출 20:4)이며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예배를 죽은 것들에게 바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참조, 사 40:20; 렘 10:5).
- (4) 한편 신약 시대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禽獸)와 버리지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라 하며 우상 숭배를 강력히 배격하였다(참조, 행 19:19; 롬 1:22, 23).
- (5)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심으로 우상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이 완전하게 멸망될 것이다(참조, 계 22:15).
- (6) 한편 오늘날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상(聖像) 숭배를 성경적인 신앙에 입각하는 행위로 보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 행위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같은 행위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해 내실 때 그들이 섬겼던 아세라 목상과 성읍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14절)**

- ㉠ (1)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섬겼던 아세라 목상과 산당이 세워졌던 성읍들을 멸하실 것이다.
- (2) 여기서 아세라 목상과 성읍들 앞에 '너의'라는 수식어가 사용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도시도 건설했음을 알 수 있다(참조, 왕하 21:7; 23:7; 대하 15:16; 24:18).
- (3) 결국 이러한 죄로 인하여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징벌을 당하였었다(참조, 왕하 25장).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후에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우상 숭배의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참조, 사 17:8; 27:19).
- (4)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신앙과 예배의 모든 타락의 요소들을 정화하거나 우상 숭배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 (5) 오늘날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명예, 이성 등을 더 사랑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내부에 존재하는 더러운 구습과 욕망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참조, 엡 4:22-24).

**15. ㉠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했던 아세라는 어떤 신인가? (14절)**

- ㉠ (1)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하늘의 일월 성신(日月星辰)과 더불어 이방 종교의



삼 대 신으로 섬겼던 풍요의 여신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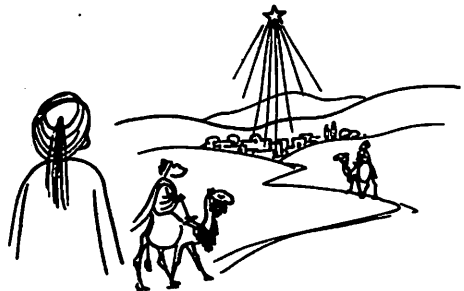
- (2) 고대 지중해 연안에 있던 도시 국가 우가리트(Ugarit)에서는 아세라를 바알이 포함된 70신들의 모신(母神)과 바다의 여신으로 섬겼다.
- (3)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아세라 상과 최초로 접하였고, 분열 왕국 이후 엘리야 시대에는 이세벨의 식탁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아세라 숭배가 성행하였다(왕상 18:19).
- (4) 그 후 므낫세(B. C. 697-642)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 둘 정도로 성행하였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무렵에는 아세라 숭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왕하 21:1-7).
- (5) 한편 70인역(LXX)에서는 아세라가 나무를 의미하는 <덴드라>, <아스타르테>와 수풀을 뜻하는 <알소스>로 번역되었는데, 이를 본받아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도 <숲> 또는 <수풀>을 뜻하는 <루크스>, <네무스>와 고유 명사인 <아스다룻>으로 번역되었다.
- (6) KJV에서도 아세라는 <작은 숲> (grove)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를 성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산 위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사 6:25; 왕상 14:23; 16:33).

16. ◉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聽從)치 않았던 나라들은 어떤 결과를 당하는가? (15절)

- Ⓐ (1)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忿恨)으로 복수를 받게 된다.
- (2)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들이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 즉 앗수르나 바벨론 등을 사용하셨지만 이들 나라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참조, 사 47:6,10; 렘 50:31,32).
- (3) 한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시기, 보복, 진노의 형태로 나타난다(참조, 신 32:35; 절 25:17).
- (4) 이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이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시 94:2; 요 3:16; 롬 5:21; 살후 1:8,9; 벧후 2:9).

본장의 요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上古)에,  
태초에니라’  
(2절).



## 제 6 장 회개의 권고와 심판의 위협

단락구분 1-2 무감각한 백성을 꾸짖으시다 / 3-5 하나님의 자비를 백성에게 회상시키다 / 6-9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 / 10-16 불의한 재산과 우상 숭배의 죄

1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너희는 여호와와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3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4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나니라

5 내 백성 너는 모압 왕 발락의 피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답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와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 여호와께서 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 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9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10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바가 있느냐

11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2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레사하도다

13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14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숨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였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15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밭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16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피를 좇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소 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 1. ㉠ 본장의 중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 권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그들에게 장차 심판으로 보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기록되어 있다.
- (2)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과거 종 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으셨다(3-5절).
- (3) 이러한 하나님의 꾸짖음에 대해 이스라엘은 회개와 신앙이 없는 형식적인 번제를 드려서 자신들의 범죄를 보상받으려고 했다(6-8절).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러한 형식주의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仁慈)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뜻을 밝히셨다(9-16절).

(5)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주일 하루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할 바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생활 전체이다(참조, 롬 12:1).

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갱변하실 때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작은 산, 산들 그리고 땅의 견고한 지대(址臺) 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  
 (2) 산과 언덕은 미가가 증거한 이스라엘의 죄를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상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산과 언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갱변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다.  
 (3)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패역하고 완고하기가 오히려 깨닫지도 못하고 이성도 없는 자연물인 산과 언덕보다도 더하였다(참조, 사 29:9-16).  
 (4) 이처럼 회복될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 예언자들은 종종 산이나 언덕 또는 하늘을 향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간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했다(신 32:1; 사 1:2).  
 (5) 오늘날에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여러 현상이나 천재 지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신다(참조, 욥 1:4, 17; 2:10; 4:6-8; 막 4:39).

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갱원하기 앞서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기 변호의 기회를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고 하셨다.  
 (2) 본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원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먼저 항변할 기회를 양보하셨다.  
 (3)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롭게 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이 권고하셨던 약속은 그들이 죄를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었다(참조, 사 1:18-20; 55:1).  
 (5)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들은 악을 행하고 그를 모욕하며 우리에게 대한 그의 기대를 저버릴 때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변호하기 보다는 항상 죄를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요일 1:9).

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신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 미리암을 지도자로 세워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내셨던 사건을 다시 언급하셨다.  
 (2) 한편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첫 단계였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선행과 특별한 사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사랑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의 소유, 즉 그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함이었다(참조, 시 144편; 사 43:1).  
 (4)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종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웃에게 그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마 10:8; 갈 5:1).

5.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을 알리기 위해 무엇을 추억(追憶)시키셨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이 브올의 아들 발람을 꾀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던

일과 싯딤에서 길갈까지의 노중(路中)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추억시키셨다 (참조, 민 22-25장).

- (2)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모압 평지에 진쳤을 때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칠 것을 두려워하여 발람을 매수해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이다.
- (3) 또한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동편 지역인 싯딤에서 진쳤을 때에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을 건너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이는 곧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새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증표이기도 하였다(수 4:18-5:9).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베푸신 공훈을 언약하심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은혜에 대해 얼마나 배은 망덕(背恩忘德)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보여 주셨다.
- (5) 한편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때때로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은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참조, 시 103:2; 약 1:25).

6. **㉠**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6, 7절)

- ㉠** (1) 이스라엘 백성은 ① 1년된 송아지 ②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江水) 같은 기름 ③ 만아들 ④ 목의 열매, 즉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
- (2)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1년된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고 때로는 양 떼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쳤다. 그리고 그 제물로도 만족하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신 장자를 제물로 바쳤다.
- (3)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제사 방식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의 근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외형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할 장자(출 13:2; 34:19), 즉 그들의 자식을 이방인들처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고 오해하였던 것이다(왕하 3:27; 16:3).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살전 수양보다 청종함이 낫다고 공포하셨다. 율법적 희생은 제도적인 공덕(公德)과 가치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속죄양이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야 하는 것이다.
- (5)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며 많은 액수의 돈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나서 우쭐거릴 때가 없는가 살펴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이고 양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치는 자의 회개와 믿음과 정성을 원하신다(참조, 행 5:1-11).

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 주신 선한 길은 무엇인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제사보다 더 나은 선한 세 가지 길을 보여 주셨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仁慈)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 (2) 이것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선하게 대하며,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을 가리킨다.
- (3) 세 가지 길 중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길은 사람에게 행할 의무가 새겨진 십계명의 둘째 돌판을 포괄하는 것이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길은 사람이 하나님께 행할 의무가 기록된 첫째 돌판을 함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참조, 신 5:7-21).
- (4)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웃에게 원망들을 일으 생각나거든 먼저 이웃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

고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마 5:23-25; 요일 4:20).

- (5)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형식적인 예배나 죄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참조, 약 2:14, 21, 24).

8. **㉠** 미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을 권고 하였는가? (9절)

- ㉠** (1) 그는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니 매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고 권고하였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통하여 회개의 권유, 충고, 주의 등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이다.  
 (3)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다시 모으실 때 그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셨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의 징계를 받고 돌이킬 때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본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참조, 롬 8:1).

9. **㉠** 미가가 백성들에게 말한 완전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완전한 지혜’란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3) 이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패역한 행동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 교만하여 영안(靈眼)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다.  
 (4) 그러나 지혜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잠 15:31-33; 딤후 3:16).

10. **㉠**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상인들의 어떤 점을 책망하셨는가? (10,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① 불의한 재물을 집에 쌓아둔 것 ② 축소(縮小)시킨 가증(可憎)한 에바를 사용한 것 ③ 부정한 저울을 사용한 것 ④ 거짓 저울추를 사용한 것을 책망하셨다.  
 (2) 상인들은 곡식의 용량을 재는 기구와 되인 저울이나 저울추 그리고 에바의 용량을 적게 만들고 부정확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3) 이러한 불의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신 명령을 어기는 행위였다(참조, 출 20:17; 신 25:13-16; 절 45:10).  
 (4) 오늘날 상업에 종사하는 신자들 중 이들처럼 용량을 줄이거나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사람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직한 상거래를 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잠 21:6).

11. **㉠** 본절에서 부자들과 그 거민들의 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2절)

- ㉠** (1) ‘그 부자들은 강포(強暴)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꾀사(詭詐) 하도다’ 라고 묘사하였다.  
 (2) 여기서 ‘그 혀가 입에서 꾀사하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강조적인 화술로서 입을 열자마자 거짓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3) 당시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재물을 모았고 백성들은 모두 기만과 허위에 빠져 있어 그곳은 서로 믿을 수 없는 신의와 도의가 땅에 떨어진 사회가 되었다.  
 (4)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참조, 잠언 10:2; 마 6:24).

12. ㉠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징계의 시작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쳐서 매우 상하게 하셨고 적막(寂寞)하게 하셨다.  
 (2)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B.C. 701년 앗수르 왕 산헤립(Sennacherib, B.C. 705-681)의 침략을 받고 간신히 멸망을 면한 사건을 가리킨다(참조, 대하 32:1-21).  
 (3) B.C. 701년의 비극적 사건은 재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 백성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생활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한 참상이 닥칠 것을 예고한 것이었다.  
 (4)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해도 그 형벌을 막아낼 방법은 없다(참조, 렘 50:29).

13. ㉠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 ㉠ (1) 그들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빈 것과 같이 불만족하게 될 것이다.  
 (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징계 가운데 하나는 기근으로서 토질을 나쁘게 하여 그 생산물인 빵의 영양분을 박탈하는 재앙이다(참조, 창 4:12).  
 (3) 따라서 그 빵을 먹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빵을 먹더라도 그 먹은 빵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을 수 없기에 만족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4) 또한 그들은 빵의 기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근도 경험하게 된다. 즉 외부로부터 자기들을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실망과 낙담이 엄습하게 될 것이다.  
 (5)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근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임을 깨닫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참조, 암 8:11; 마 9:37, 38).

14. ㉠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그들이 감추고 보존했던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 ㉠ (1)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감추고 보존했던 모든 것이 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2)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 가운데 하나는 '칼'로서 앗수르의 침략을 의미한다.  
 (3)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면 하나님의 징계 정도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산을 숨겨 두고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장소로 피신한다.  
 (4)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들의 지혜로써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적에게 빼앗기게 하고 그들은 대적의 칼날에 멸망당할 것이다(참조, 고전 1:25).  
 (5)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거민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사고나 행동 범위 안으로 축소시켜 교회 밖에서의 행동은 하나님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15. ㉠ 미가는 대적에 의해서 짓밟힐 국토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5절)

- ㉠ (1) 땅에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橄欖)을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고 묘사되었다.  
 (2) 여기서 그들이 추수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기름을 몸에 바르기 위해서 감람을 밟으며, 술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지만 아무런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추수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감람과 포도가 익기 전에 대적이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3) 한편 이러한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미가의 묘사는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다(신 28:38-40; 레 26장). 당시 예언자들은 자기들의 말에 권위를 두기 위해서 율법서에 기록된 사실을 문자 그대로 종종 인용하였었다.

16. ㉠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케 하며 사람의 치소(嗤笑)거리로 만들고 수욕(羞辱)을 당

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 이유는 그들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죄를 좇았기 때문이다.
- (2)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오므리와 아합 시대는 역대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여 타락과 배교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 (3) 오므리(B. C. 885-874)는 여로보암이 정적으로 삼았던 우상 숭배 죄를 답습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법률로 제정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였다(참조, 왕상 16:25, 26).
- (4) 또한 그의 아들 아합(B. C. 874-853)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명령(출 34:12-16)을 어기고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며(참조, 왕상 16:29-33),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였고, 남의 소유를 탐내어 강탈하는 죄를 지었다(참조, 왕상 21장).
- (5) 그런데 지금 유다의 형편이 오므리와 아합 시대와 같이 타락하여서 타인을 속여 그 소유물을 강탈하며 우상을 숭배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황무케 하여 이방 사람들의 치소, 수욕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 (6)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조롱 거리가 되게 하신다.

## 연구자료

공의(公義)를 부르짖은 선지자 미가. 미가는 선지자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인 B. C. 8세기 후반에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귀족 출신인 이사야와는 달리 가난한 계급 출신인 미가는 권력자들의 부정과 불의에 대하여 날카로운 의식을 드러내었다. 그는 백성의 통치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3:1-4). 귀족들은 자신의 소유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가로채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2:1, 2). 그 결과 과부와 그의 어린 자녀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였으니(2:9) 이는 실로 미가의 비탄(悲嘆)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뿐 아니라 미가는 종교적 지도자격인 선지자들에 대하여서도 고발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며 의(義)의 길로 인도하는 대신 선지자라는 직분을 자신의 치부(致富) 수단으로 삼았다(3:5).

## 제 7 장 흑암 중에 하나님의 영광

단락구분 1-6 의인의 단절과 부도덕을 탄식하다 / 7-13 하나님의 구원과 이방의 귀순 / 14-17 미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 18-20 하나님의 자비

1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2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치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3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발하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4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철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도다

5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 아들이 아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도다

7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리도다

8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9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도다

10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도다

11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12 그날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13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도다

14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람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15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16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17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활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 다시 우리를 공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 1. ㉠ 본장의 중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의 손을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참아 내는 자들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참아 낸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조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더욱 신실히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인애로 성취되었다.
- (4) 참된 회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삼상 7:3; 행 8:22; 9:35).

2. **㉠** 미가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부패한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절)

- ㉠** (1) 그는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와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라고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나'란 의인화(擬人化)된 이스라엘로서 추수할 들판으로 비유되었으며, '먹을 송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는 의인(義人)을 가리킨다.
- (3)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감람나무와 더불어 팔레스틴 지역에 가장 흔한 나무이다. 이른 무화과는 보통 6월 초에 수확하고 포도는 8,9월에 수확하는데 이같이 수확이 끝난 산지나 들판에 이른 무화과나 포도 송이가 있을 리 없다.
- (4) 따라서 이 비유는 추수가 끝난 후에 이른 무화과 열매나 포도 송이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의인을 찾을 수 없음을 가리킨다.
- (5) 추수 후에 포도 송이나 무화과 열매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해 한탄하는 미가의 이러한 모습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한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렘 5:1).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저주하셨듯이 저주를 하실 것이다(참조, 눅 13:6-9; 갈 5:22, 23; 빌 1:11).

3. **㉠** 미가는 타락한 백성들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한탄하였는가? (2,3절)

- ㉠** (1) 그는 백성 중에서 선인과 정직자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백성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埋伏)하며 자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였다.
- (2) 한편 70인역(LXX)에서는 '선인'을 신앙심 깊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유세제스>로, '정직자'는 목표를 향하여 똑바로 가는 자라는 <카토르돈>으로 번역하였다.
- (3) 그런데 타락한 백성들은 마음속으로는 형제를 속일 방법을 열망했고 머리로는 그것을 피했으며 두 손으로는 그 일을 실행했다.
- (4) 이것은 백성 중에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잔인함과 사기 그리고 흉악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가리킨다.
- (5) 이처럼 사람이 죄악을 좇아 그것을 위해 수고하면 할수록 그와 같은 인간의 행위는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참조, 왕하 22:13).

4. **㉠**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3,4절)

- ㉠** (1) 그것은 군장(君長)과 재판자가 뇌물을 구하며, 대인(大人)이 마음의 악한 사욕을 말하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절레 울타리보다 더 악했기 때문이었다.
- (2) 여기서 가시와 절레는 인간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 파멸, 불신앙, 고통 그리고 위협한 환경 등을 의미한다(참조, 창 3:18; 잠 26:9; 사 32:13-15; 겔 2:6; 호 2:6).
- (3) 또한 가시에 걸리는 자는 대개 살과 옷을 찢기는 곤욕을 당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이것을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도둑을 막는 울타리와 불을 때는 연료로도 사

용하였다(참조, 사 8:16; 시 58:9).

- (4) 이처럼 그 땅은 통치자 중에 가장 선하고 정직하다는 자들도 쥘레와 가시처럼 남을 해하며 괴로움을 줄 정도로 온갖 종류의 죄악이 가득 차 극에 도달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부패하면 쥘레와 가시처럼 그 백성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참조, 사 45:1-13).

5. **㉠** 미가 당시의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신의를 잃어버린 상태였는가? (5절)

- ㉠** (1) 이웃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의지할 수 없으며 품에 누운 여인, 즉 아내에게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 (2) 이것은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아무런 신실함도 남아 있지 못하며, 인간다운 모습이나 자연적인 애정을 망각한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렘 9:4).
- (3) 따라서 미가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만 장래의 소망을 두어야 함을 백성들에게 강조했다.
- (4)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불의와 미움이 가득하여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이다.

6. **㉠**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신 사회에서 가정의 타락은 어느 정도였는가? (6절)

- ㉠** (1) 집안 식구가 원수처럼 되었다. 즉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였다.
- (2) 그 당시 가정은 신뢰와 사랑이 밀바탕 되어 가족을 하나로 결속하고 하루 일과를 끝마치면 평안한 휴식과 안정 그리고 만족을 제공하는 역할을 전혀 못 하는 상태였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가족간의 신뢰의 파괴는 그들 가정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신뢰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이러한 가정 파괴의 근본 이유는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데 있다(참조, 창 2:24; 신 5:16; 마 15:4).
- (4)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세기말적 현상, 즉 가족 상호간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신이 가득 차서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사태가 극에 달할 것을 예언하시고 이런 때에 자신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눅 21:16).
- (5) 성도들에게 있어 가정은 신앙의 산실(産室)이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각기 주께 하듯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고전 7:3; 11:3-7; 엡 6:1-4).

7. **㉠** 백성들의 부패가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때에 미가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7절)

- ㉠** (1) 미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면서 그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 (2) 여기서 미가로 나타나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자들과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
- (3) 한편 ‘우러러본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차페>는 본래 ‘바라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미가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두 눈앞에 계신 것처럼 경건하게 생활한 것을 가리킨다.
- (4) 그리고 ‘바라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호킵>은 ‘기다린다’는 뜻도 가지는데, 이 말

은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심판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한다.

(5) 또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미가가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온갖 환난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을 시사한다.

(6) 이와 같이 성도가 죄로 가득 찬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길뿐이다(히 12:2).

8. **㉠** 대적들이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유다는 엎드려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유다가 '엎드려지고 어두운 데 앉는다'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될 사실을 가리킨다.
- (3) 즉 대적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정복의 기쁨을 누리며 유다 백성의 수치를 즐거워할 것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신실한 자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더라도 진노로 자신의 은혜를 거두시거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7:19, 20).
- (5)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과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참조, 시 33:20; 롬 8:26).

9. **㉠**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광명(光明)으로 인도하시며 그의 의를 보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고 순종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6:9).
- (2) 즉 이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인내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킨다.
- (3) 한편 '구원의 축복'이란 B. C. 538년 메대 바사의 황제 고레스(Cyrus, B. C. 558-529)가 바벨론의 새 통치자가 되면서 유다 포로들의 귀국을 허락한 사건을 가리킨다(대하 36:22, 23; 스 1:1-4).
- (4)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기로 계획하신 것은 그의 백성의 구원이 당신께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5) 또한 이러한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모형이 된다.
- (6) 우리는 일상 생활 가운데 무수히 많은 죄를 짓는데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참조, 사 55:7; 요일 1:9).

10.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유다의 대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10절)

- ㉠** (1) 유다의 대적은 하나님의 의를 보고 부끄러울 뿐 아니라 거리의 진흙같이 밟힐 것이다.
- (2) 대적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유다 백성을 업신여겨 완전히 멸절시키려 하였다(참조, 시 42:3; 79:10; 욥 2:17).
- (3)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긋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바벨론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사 10:5-15).

- (4)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포로된 유다 백성과 하나님께 퍼부은 모욕과 경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 것처럼 그들에게도 같은 벌을 내려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게 하실 것이다(참조, 신 13:8,9; 사 10:7).
- (5)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웃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비웃지 말고 오히려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참조, 히 12:5,6).

**11. Q 미가는 유다 백성들이 흩어졌던 모든 나라로부터 귀국하는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1, 12절)**

- A** (1) 그는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地境)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 이라'고 묘사하였다.
- (2) '성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가테르)인데 '담'이나 '울타리'를 의미한다. 예언자들은 유다 백성이 침략당하는 것을 종종 담이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비유하였다(참조, 암 9:11, 14). 따라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사면으로 성벽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 (3) 그리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KJV에서는 이 말을 '칙령을 멀리 추방할 것이다' (the decree be far removed)로 번역하였다. 즉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바벨론의 칙령을 지키지 않게 될 것임을 가리킨다.
- (4) 뿐만 아니라 미가는 유다 백성이 분산되었던 각국에서 돌아오게 될 사건을 4층으로 강조하였다. 여기서 '하수'는 유브라테 강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란 서편의 지중해에서 동편의 바사 만까지를 그리고 '이 산에서 저 산까지'는 남편의 시내 산에서 북편의 레바논 산까지를 가리킨다.
- (5) 이러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복음 운동에 세계 만민이 참여할 것을 의미한다(참조, 막 16:15; 행 1:8; 골 1:23).
- (6) 이처럼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참아 낼 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소망을 주신다(참조, 고후 8:2; 벧전 4:12, 13).

**12. Q 미가는 하나님께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도하였는가? (14절)**

- A** (1) 그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森林)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읍소서'라고 간구하였다.
- (2)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목자로 등장하며,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자의 필수품으로서, '주의 지팡이'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특별한 돌보심을 의미한다(참조, 시 23편).
- (3) 또한 '갈멜 속 삼림'의 생활은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데 그곳에는 양들을 잡아먹는 맹수들이 많이 있어 그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은 오직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뿐이다. 따라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 (4) 그리고 '길르앗과 바산'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으로서 '길르앗'은 목축으로 유명한 지역이었고, '바산'은 숲이 우거진 비옥한 지역이었다(민 32:1; 대상 5:9; 시 22:12).
- (5) 그런데 B. C. 735년 북이스라엘 왕 베가(Pekah, B. C. 752-732)가 인근 지역들과 동맹하여서 앗수르에 대항한 결과 길르앗과 바산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Tiglath-Pileser III, B. C. 744-727)의 침략을 받고 앗수르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왕하 15:29).
- (6) 따라서 미가가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은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일

찌기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유산을 다시 누리며 살게 해 달라는 뜻이다.

- (7) 한편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혜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주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만 그 지혜와 과학은 참되고 올바른 것이 될 것이다(참조, 대상 22:12; 잠 3:21, 22).

13. **㉠**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을 구하는 미가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내셨던 것처럼 기사(奇事)를 보이겠다고 응답하셨다.
- (2)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성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백성들에게 나타난 사건이었다(창 15:14; 출 2:24).
- (3) 이러한 이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役事)가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일어날 것인데,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 더욱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드러나는 사건이 될 것이다(렘 16:14, 15).
- (4)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미가가 요구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으로 희망과 기대가 넘치는 것이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행하고 시련을 이겨 낸 자들에게 그들이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욥 42:12; 마 25:23; 빌 4:19).

14. **㉠**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한 기사를 본 열방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16, 17절)

- ㉠** (1) 열방은 네 가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즉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고 귀가 막힐 것이며, 뱀과 벌레처럼 티끌을 핥고 그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손으로 그 입을 막는다'는 것은 침묵, 즉 병어기가 됨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 것처럼 즐거워하던 대적들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을 가리킨다.
- (3) 또한 열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소문과 자기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예 귀를 막아 버릴 것이다.
- (4) 그리고 그들은 뱀과 벌레가 티끌을 핥는 것처럼 비천해질 것이다. 여기서 미가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강대국들을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와 뱀에 비유한 것은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의 교만한 모든 것들이 격파되고 비천해질 것을 가리킨다.
- (5) 따라서 그들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비천하며 무력한가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 (6)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서 구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을 비웃던 불신자들에게 당신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신다(참조, 단 3:1-30; 6:12-28).

15. **㉠** 미가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18절)

- ㉠** (1) 그는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죄악을 사유(赦宥)하시고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였다.
- (2) 한편 '죄악을 사유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죄악을 없애 버린다'는 뜻이며, '허물을 넘긴다'는 말은 '허물을 채잡지 않고 전혀 허물이 없는 것처럼 지나쳐 버리신다'는 뜻이다. 즉 이 두 표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죄를 가리킨다.

- (3) 그리고 ‘그 기업의 남은 자’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한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의 허물을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시는 이유는 그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즉 백성들이 수없이 그 계약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용서의 처방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원의 희망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참조, 시 86:5; 몬 1:6).

16.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矜恤)히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사죄의 철저하심과 죄의 세력을 멸절하시는 사역의 위대함을 나타낸다.
- (3) 여기서 ‘발로 밟는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카바쉬)는 ‘정복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발로 밟고 정복하실 것을 가리킨다.
- (4) 이와 같이 죄악은 인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원수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 뒤를 추적하던 애굽의 군대를 깊은 바닷속에 수장시키신 것처럼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이다.
- (5)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의 영과 죄를 정복하게 하셨다.
- (6)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죄짓게 하는 일들을 멀리하고 항상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시 66:18; 사 59:2; 64:7).

17. **㉠**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이 본절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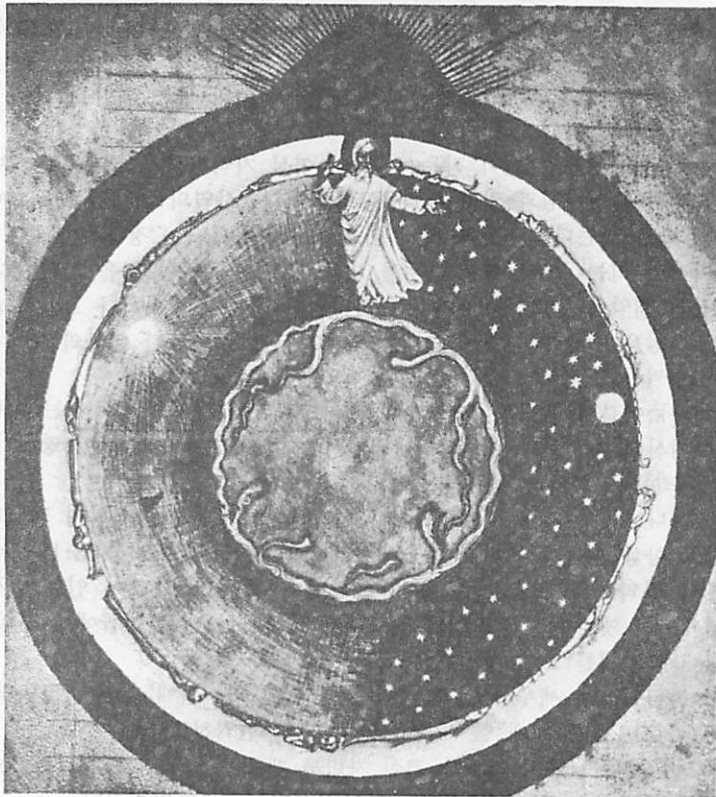
- ㉠** (1)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보여 주실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특징은 ‘성실’과 ‘인애’로서, KJV에서는 ‘성실’을 ‘진리’(truth)로, ‘인애’를 ‘자비’(mercy)로 번역하였다.
- (3)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신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용납하셨으며, 그의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도 진실과 성실을 다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 (4) 또한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적용되었고 다시 야곱과 그 후손에게 계승되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인애로 성취될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거나 낙망치 말아야 한다(참조, 시 46:1; 54:4; 히 13:6).

**본장의 요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7절).

## 화보자료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프란체스코(Francesco) 수도사들이 사용하던 기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삽화이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심을 나타낸 그림이다.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참조, 시 139:7-12). 이 점에 있어서는 선지자 미가도 마찬가지였으니 그는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이 되실 것임을 확신 하였었다(8절). 이 같은 믿음과 확신은 어지러운 세태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니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

# 나 훔 Nahum

불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  
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1:15)

הִנֵּה עַל־הָהָרִים רַגְלֵי מְבַשֵּׁר מִשָּׁמַיִעַ שְׁלוֹם  
תָּנִי יְהוּדָה חֲנִיף שְׁלָמִי נִדְרֶיךָ כִּי לֹא יוֹסִיף עוֹד  
לְעַבֹּר־בְּךָ בְּלִיעֵל כָּל־הַ נִכְרָת: